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영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G7보다 높은 수치로서 OECD회원국들 중 상위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수의 93.3%에 달한다. 하지만 2020년 3/4분기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38.4%에 불과하며, 대표적인 폐업/업종전환 고려 이유는 수익성 악화, 판매부진, 경기불황이다. 이처럼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취업을 하거나 기존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반면, 업종전환 및 업종전환 의지는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를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를 높인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핵심어: 소상공인, 사업실패경험, 업종전환의지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0년 및 최근 기준 38개 회원국 가운데 6위이며,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89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나,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여 아직 큰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620만명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93.3%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897만 명에 달한다(중소기업뉴스, 2021). 또한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86천 개, 종사자수는 6,618천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8%, 전체 고용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49천 개, 종사자수는 193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0.1%p, 종사자 수 비중은 0.6%p 증가하였다(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2021).

<표 1> 2019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체	전체	3,676,499	3,813,723	3,813,723	3,874,410
	소상공인	3,137,700	3,236,238	3,236,238	3,285,574
	비중	(85.3)	(85.3)	(84.9)	(84.8)
종사자	전체	17,051,453	17,711,917	17,711,917	17,934,571
	소상공인	6,202,033	6,424,490	6,424,490	6,617,527
	비중	(36.4)	(36.8)	(36.3)	(36.9)

* 자료: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가공 및 재편

사업체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6.8%), 숙박 및 음식점업(20.3%), 제조업(11.1%) 순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4.4%), 숙박 및 음식점업(21.3%), 제조업(17.9%)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사업체 수

* yanceymun@kookmin.ac.kr

** yun88@kookmin.ac.kr

와 종사자 수에서 생활형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2021).

<표 2> 2019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全) 산업	3,285,574	100.0	6,617,527	100.0
도·소매업	879,108	26.8	1,616,919	24.4
숙박 및 음식점업	665,785	20.3	1,407,896	21.3
제조업	366,026	11.1	1,186,840	17.9
기타	1,374,655	41.8	2,405,872	36.4

* 자료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가공 및 재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중은 영국(92.3%)과 한국(84.8%)이 높았으며, 미국(64.7%)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36.9%, 영국 28.0%, 독일 18.4%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미국은 5.6%로 비교적 낮았다(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2021).

<표 3>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구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비중(%)
한국(2019)	3,286	84.8	6,618	36.9
미국(2017, 기업)	3,883	64.7	7,148	5.6
영국(2020, 기업)	5,522	92.3	7,775	28.0
독일(2018, 기업)	2,127	81.8	5,722	18.4

주1 : 한국의 소상공인 기준 적용(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주2 : 독일의 경우 'Micro-enterprise'로 명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20년 12월말 공표)

2020년 3/4분기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수는 573,514개이며, 2020년 1/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수는 100개 생활밀접업종 전체 기준이며, 2018년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수(636,666개)의 약 90%에 해당한다.(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2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2020년 3/4분기 서울시 소상공인 통계)

<그림 1> 총점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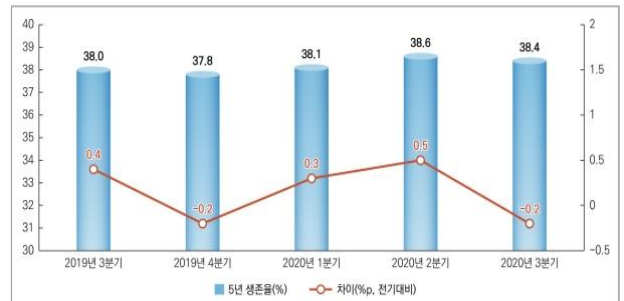
2020년 3/4분기 서울시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은 77.6%이며, 2020년 1/4분기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전분기 77.0%보다 0.6%p 증가하였다(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2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2020년 3/4분기 서울시 소상공인 통계)

<그림 2> 1년 생존율

2020년 3/4분기 서울시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38.4%이며, 전분기 38.6%보다 0.2%p 감소하여, 전년도 동분기('19.3/4분기) 5년 생존율 대비 0.4%p 증가하였다(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2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2020년 3/4분기 서울시 소상공인 통계)

<그림 3> 5년 생존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집계됐으며, 이는 OECD 주요국들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인 41.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창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8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은 80.9%, 도·소매업은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73.7%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업종 중 5년차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은 39.9%에 그쳤다. OECD주요국의 5년차 생존율은 41.7%로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가 뒤를 이었다 (정연수, 2020)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사유 1위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며, 그 다음으로 적성·건강·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이 뒤를 잇는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근로 등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31.3%)가 가장 많으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 준비 중(7.8%), 휴식 중이며 취업 준비 중(7.6%)순이다(일요시사, 2019).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폐업/업종전환 고려 이유(1순위)'에 따르면 총 12,187명의 응답자 중 50.5%가 수익성 악화, 18.4%가 판매부진, 경기불황이 16.0%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사유 9.5%, 기타 2.2%, 거래기업 부도 2.1%, 수출여건 악화 0.5%, 매각 등 투자회수 0.4%, 유통구조 0.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그 중에는 폐업 후 재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사업실패경험 관련 연구는 재창업의지와 기업성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사업실패경험이 업종전환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진 바 없다.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을 입은 창업자와 업종 전환의지 사이의 관계가 연구된다면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교육 실무 등에서 유의미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II. 연구 배경

2.1. 사업실패

정대용·김재형(2015)은 창업실패 개념정의에 대하여 창업을 통해 조직한 사업이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Gartner et al., 1992)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창업실패를 사업실패로 간주했다.

장수덕(2003)는 Watson & Everett(1966)의 벤처연구에 대한 실패의 정의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의 중단(discontinuance of business) 이다. 여기에는 소유구조가 바뀐으로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공식적 파산(formalbankruptcy) 이다. 여기에는 재무관계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도, 채무자들에 의한 경매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정관리 같은 것이 포함된다.

셋째,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의 처분(disposed of to prevent further losses) 이다.

넷째,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 (failing to 'make a go of it')이다.

파산은 법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정의하는 매우 명쾌한 개념이지만 파산은 국가마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실패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실패로 인정이 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한다(Ucbasaran, et al., 2013, 배태준·최윤형, 2020, 재인용).

최근,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업실패의 개념은 Ucbasaran et al.(2013)이 제시한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능력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중지'이다. 이렇듯 학자들마다 사업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실패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배태준·최윤형, 2020).

기업의 실패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의 한계와 기업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하규수, 2009) 우리나라는 실패한 경영자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업의 실패'가 아닌 '인생의 실패'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종호, 2015).

기업가에게 사업실패와 관련해서 실패에 대한 경제적 및 법률적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기업

가의 창업의욕을 기대하는데 제한적이다(하규수·박배진, 2020).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업 실패의 개념은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 능력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파산하거나, 사업을 처분하거나, 사업운영에 실패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1966년에 개정된

「중소기업법」에서 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소은영·박성환 2015).

이후 1997년에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게 되었다. 현재는 개인 또는 법인의 구분 없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채정협·이호택 2020).

2.3. 업종전환

업종전환이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기업의 생존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이시켜가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의미한다(민준홍, 1998).

업종전환이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기업의 생존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이시켜가는 일련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의미한다(송원규·김언수, 2004).

중소벤처기업부(재기지원과)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시행 2015. 12. 16.] [중소기업청고시 제 2015-63호, 2015. 12. 16., 타법개정] 중 제 1장 제 2조(정의)의 2항에 따르면 ‘업종전환’이란 사업전환 유형 중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2.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획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개인이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심리적인 적응을 돕는 긍정적인 수단이 된다(Cohen & Hoberman, 1983).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와 관심, 사랑, 동정 등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정서적지지, 일을 대신해 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물질적지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정보적지지, 행위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평가적지지로 설명하였다(조한준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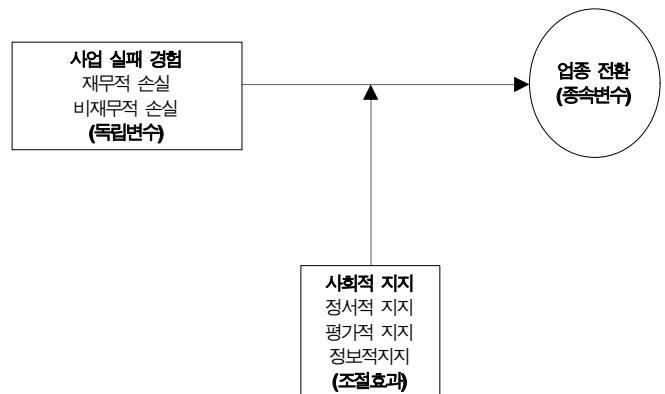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정한 대상은 창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하였거나, 창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목표하는 소상공인이다. 조사 방법은 창업 실패 경험, 업종 전환 등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제작하여 지인 및 온라인 패널을 통한 배포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6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불성실 답변 14부를 제외한 613부의 설문지 결과를 통해 실증 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의 방향은

첫째, 사업실패경험과 업종전환 의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실패경험과 업종전환 의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그림 4>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실패경험이 업종 전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업종 전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창업 실패 경험으로 구분하고, 창업 실패 경험이 업종 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조절변수로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 이전 창업 경험 횟수, 가정 내 추가 수입원의 여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의 검정을 위해 독립변수인 창업 실패 경험과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종속변수인 업종 전환 의지라는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소상공인의 창업 실패 경험은 업종 전환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창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은 업종 전환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창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은 업종 전환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과 업종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 2-1: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업종 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업종 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업종 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업종 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업종 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6: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지지는 창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업종 전환 의지 사이에 조절효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목적달성을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개념을 구체화하고 각 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 설문항목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보완하여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실패경험 등 변수에 따른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으로 정리하였다.

<표 4>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 (Likert 5점척도)		
	개념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사업실패경험	재무적 손실(5)	사업의 중단, 파산, 처분, 지속적 운영의 실패 경험	송경숙(2015) 김형호(2016)
	비재무적 손실(5)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4)	일반인 대상의 사회적지지 항목	임교순(2016) 김상수(2017)
	물질적지지(3)		
	평가적지지(4)		
업종전환의지	창업의지(4)	창업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려는 성향	호병환(2016)

참고문헌

김중호(2015). 사업실패자의 패자부활전을 위한 재기지원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복선형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법학연구*, 58, 161-204.

김하경(2017). *사업실패에 대한 개인평가와 손실경험이 재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김형호(2016).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와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민준홍(1998).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배태준·최윤형(2020). 사업실패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중소기업연구*, 42(3), 43-75.

박형수(2019). *소상공인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송원규·김연수(2004). 업종전환 전략의 개념적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181-209.

일요시사(2019). 소상공인 폐업 사유 1위는?, Retrieved 2021.0918. from <https://m.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06473>

채정협·이호택(2020).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경쟁전략과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20(4), 171-180.

하규수(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하규수·박배진(2020). 중소기업 기업가들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 *벤처창업연구*, 16(1), 87-97.

하승우(2021). 소상공인 76.8% “고강도 집합금지·영업제한 더 이상 안돼”. 중소기업뉴스,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07>.